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94 예수사랑큰잔치

태신자 카드 - 이렇게 작성하자

다음 주일(7월 10일)까지 작성 끝마치기를
구역예배시 작성 ⇒ 구역장 ⇒ 교구 교역자에게
7월 10일에는 그리스도 편지 제1신 발송

'94 예수사랑 큰잔치가 시작됐다. 금년의 목표를 30,000명 동원에 6,000명의 결신자와 3,000명의 등록인, 이중에 2,000명을 정착시킨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며 준비중에 있다.

예수사랑 큰잔치는 한마디로 전도운동이다. 1년에 1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건을 마련하고 혼자서 어려운 일을 모두가 함께 해 보자는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태신자 작성에 의한 전도운동과 잃은 양 찾기운동을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잃은 양 찾기운동은 재적자 중에서 교회불출석자, 장기결석자, 낙심자, '93예수사랑 큰잔치 참석자 중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각 교구 담당교역자는 결석자에게 전화하고 권면, 하고 2주 이상 결석시 이를 직접 심방하게 된다.

전도를 위해서는 몇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중에 첫번째가 전도대상자(태신자)를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지난주에 태신자카드를 전교인에게 배부했다. 교인들은 이것을 태신자카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구역예배시(7월 1일, 7월 8일) 구역장에게 제출하고 구역장도 주일 교구모임시 교역자에게 제출하여 교회에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 진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태신자카드는 전도를 보다 더 구체화하고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이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분명한 전도대상자를 놓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태신자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영준 전도사 부임



교회는 김정숙 전도사(제22교구)의 병가에 따른 후임으로 한영준 전도사(만 38세)를 청빙했다. 한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서 1973년부터 1986년까지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서울지회 간사, 한국기독교수양관 프로그램 비서 등의 일을 해왔다. 서울신학교, 아세아연합신학교, 총신대학 신학원 등에서 공부했으며 서울 다락원교회에서 교육전도사, 부산 수영로교회 전도사 등을 역임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22교구 전도사로 일하게 됐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수요강해, 요한계시록 시작

92년 3월부터 시작한 마태복음강해 끝나

매주 수요일 I, II부 예배시 강론되던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가 오는 7월 6일(수)로 끝나게 된다. 92년 3월부터 시작한 마태복음 강해는 2년 4개월 동안 계속되어 오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 등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오며 큰 은혜를 끼쳤다.

따라서 7월 13일(수)부터는 마태복음 강해에 이어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줄 요한계시록 강해를 기다리며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고3 학부모 초청 세미나

고등부, 오늘 오후 3:30~4:30

교회학교 고등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갈릴리홀에서 고3 학부모를 초청하여 특별세미나를 갖는다. 전반기가 끝나가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의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의 고3 학생들의 진학지도 및 효과적인 성적향상과 신앙지도 등을 초점으로 실시하게 된다.

강사는 일선학교에서 수년간 고3 진학 및 진로지도를 담당해온 구재완 집사(고등부 교사)이다.

태신자카드 작성 및 제출방법

· 태신자란 무엇인가요?

태신자란 '믿음과 기도로 마음에 잉태한 전도 대상자'란 뜻입니다. 여기에는 잃은 양에 해당되는 장기 결석자, 가족 중 교회 불출석자, 접촉점 편지를 통해 연결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은 모든 수신자들이 포함됩니다. 사실 접촉점 편지를 받은 대상자들은 아직 마음 문이 닫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가슴에 품고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으로 마음문을 두드려 열게 해야 합니다.

· 어떻게 태신자 카드를 작성할까요?

- 1 백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나는 이름들을 적어 봅니다. 나의 가족, 직장 동료, 학급 급우, 이웃의 사람, 불신자 중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대상으로 믿고 이름을 적어봅니다.
- 2 이름이 기록된 카드 중에서 교회 보관용은 구역장을 통하여 교회에 제출하고 개인 보관용을 성경책에 끼워 늘 관심을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교제합니다.
- 3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말씀을 날마다 외우며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실천합니다.

· 작성된 태신자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 1 지난주일(6월 26일) 배부된 태신자 카드는 7월 1일과 8일(금) 구역예배시 함께 모여 기도로 작성합니다.
- 2 작성된 카드는 구역장에게 제출, 구역장은 주일날 교역자에게 제출합니다. 그 후에 작성된 카드도 마찬가지로 교역자에게 제출합니다.
- 3 작성된 카드의 보관용은 개인이 갖고 계속 기도하며 7월 10일 그리스도의 편지 제1신을 일제히 보냅니다.
- 4 그 밖에도 주보나 주간충현, 각종 전도지, 설교 테이프 등을 전달하며 선행에 힘쓰고 인격적인 교류를 가져 믿음을 증거합니다.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 농어촌목회자 초청세미나가 지난 6월 28일~7월 1일까지 농어촌목회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원기독교원에서 열렸다. 3박 4일간 참석자들은 현재의 농어촌의 현실과 그 타개방안 및 농어촌 교회 부흥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을 듣고 농어촌 교회의 현실과 복음전도를 주제로한 분임토의, 저녁 부흥회 등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농어촌 교회 목회 사역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명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레크레이션 및 관광시간 등을 통해 마음껏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보냈다. 교회는 이 행사를 위해 오랜전부터 준비해왔고 또한 모든 진행을 성심성의껏 하여 농어촌목회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일반 장례식 사건과는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에 대한 형벌이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범한 바 죄를 통회자복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 대한 저주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1. 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1)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했을 때 ‘아리마대’라는 말은 그가 태어난 출신지역을 말합니다. 아리마대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라마다임(삼상 1:1)이라는 지역이 아니겠는가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첫째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공회에서 요직을 맡은 사람입니다(막 15:43, 눅 23:50-51). 둘째로 그는 부자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사 53:9)라는 장차오실 메시야의 무덤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57절).

아리마대 요셉의 훌륭한 점은 첫째로 그는 부자로서 예수님께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나 양심의 법에 따라 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눅 24:50, 51). 셋째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막 15:43, 눅 24:51). 넷째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변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2) 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그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사망을 했을 때 바로 그 날,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장례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장례법은 먼저 시신을 깨끗히 씻고 시신에 향료를 바릅니다. 그 향료는 냄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히고 봉대를 감듯이 머리서부터 차근차근 싸포로 감습니다. 따라서 본문 53절에 요셉이 시체를 가져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혼자서는 아닌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례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혼자서 하기에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 때 몰약과 침향울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지고 와서 요셉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 땅의 왕들과도 같이 장엄하게 갖추어야 할 것 모든 것을 갖추어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무덤은 준비된 새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도 장사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안식처로서 새 무덤이야말로 인생의 새 출발점입니다.

2. 무덤에 온 여인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왔더라”(61절)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6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다른 마리아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도 아닌 두 여인들이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묘지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컴컴할 때에 묘지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 대한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아 8:6).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가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충현강단



무덤에 장사되심

(마 27:57-66)



신 성 종

<목사·담회장>

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이단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을 실재 눈으로 보고 입증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에 보면 두 사람 이상이어야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여인은 율법적으로 합당한 증인입니다.

3. 유대인들의 또 다른 공모

악인들이 죄를 짓고난 다음에는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략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이고 나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했던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에 파수꾼과 병정을 세워서 잘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허락하고 무덤을 막은 돌을 인봉하고 굳게 했다고 했습니다. 돌을 인봉했다는 말은 그 당시 황제의 도장을 돌에 찍는 것입니다. 인봉한 것을 누군가가 연다면 그것은 바로 가이사 황제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러므로 돌을 인봉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열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만 가지고는 불안해 하나까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허상과 유대지도자들의 공모, 그리고 그들의 악한 최후의 발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무덤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저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에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만 하고 또 전파되어질 것입니다.

4. 본문의 교훈

첫째로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때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한때는 비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변화하였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사탄과 그것을 추종하는 세력의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

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나 신자들이 순간적으로 방해를 받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나타나고야 말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어리석은 군병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군병들은 사실 아주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위엄있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새 무덤에 장례지내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28장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돈(뇌물)을 받아 먹고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습니다. 저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다섯째로 이 세상에는 참으로 지켜야 할 것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속으로 사탄이 들어가고 죄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잘 지켜서 사탄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섯째는 빌라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바라바나, 그리스도냐? 하고 군중들의 인기에 영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에서 죽은 후에야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준 비겁자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준 그는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와서 무덤을 지켜달라고 청했을 때도 허락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중에 아니니라”(갈 1:10)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봉사입니다. 열두 제자들,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 날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이 두 마리아는 십자가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리아들처럼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와 가정에서 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께 봉사했던 두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간절한 사랑에 있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능력받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에 되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일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 부부는 굳게 다짐

고 옥 순

(제7교구, 새가족부)

부천에서 살고 있을 때 주위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전도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었다. 난 그 사람의 기도가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 않았다. 내가 다니고 싶으면 직접 교회로 나갈텐데 왜 집에까지 와서 귀찮게 하나 하고 속으로 비웃기도 했다.

그후 한참지나고 나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3년을 아프다가 허리 디스크라는 병명을 받고 난 후 지난 12월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난생 처음 수술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 큰 두려움과 마취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해 남편과 자식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공포에 싸였다. 그래서 속으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 달라고 외쳤다.

수술받기 하루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러 병원에 오셨다.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신앙고백을 하였다. 기도를 마친후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전도사님께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십시오. 수술 잘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말이였다.

난 그 순간 교회에 나가겠다고 생각

했다. 그 즈음에 충현교회에 다니고 있던 10여년을 넘게 사귀고 있는 친구가 병원에 문병하러 왔다. 난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였더니 잘 되었다고 하면서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병원에서 퇴원하여 우리 충현교회에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였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였다.

수술은 잘 되었고 퇴원할 때까지 고통없이 잘 지낼 수 있었다. 퇴원후 당초 약속대로 우리 충현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천주교 학교에 다녔고, 성당에만 다녔다는 남편도 내가 택한 신앙의 결심에 적극 찬성하며 용기와 희망을 부추겨 주면서 같이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있으며, 일생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우리 부부는 굳게 다짐하였다.

하루 빨리 중학교 1학년인 재창이와 국민학교 4학년인 재덕이도 같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온 가족이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신앙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었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하나님! 더욱 더 믿음이 강하고 축복 받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도와 주세요.

시

맥추감사절

보리익는 철이 되면
역삼동 언덕에도
칠월의 향기 보리 내음이 불어온다.

오늘월 따갑던 빛은
더욱 뜨거운 칠월 보릿가을
땅으로 땅으로 내려오는
태양은 주님의 눈동자

이른 비 늦은 비 고루 주시는 축복
맘만큼 노력만큼
여호와께 드리는 첫수확
재단 앞 겸손히 바치는 맥추감사절

가진 자 못가진 자 모두의 정성
맥추절 재물 바치는 성도
때를 따라 늦은 비로 임하시는 성령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일년 중 세번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성도들도 지키게 하소서

이삭 바친 아브라함
하나님께 잘 바치는 마케도냐 교회
우리 본 받게 하소서

재물 숨기다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빼앗긴 한 달란트 쫓겨나는 저주
인간의 욕심버리고 온 성도 깨닫게 하소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의 승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되게 하소서

김 윤 섭
(집사, 초동3부 교사)

물맷돌

사람의 위대함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무척 강하고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일개 포로의 신분에서 전 국민을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갔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런 다니엘의 생애를 잘 살펴보면 다니엘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쳤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풍성함(그의 사랑, 신실함, 위대함, 광대함, 전능함 등)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 나머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낼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사랑과 존경과 헌신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과 결심과 자책이 나올 뿐이다.

다니엘의 위대성을 갖게 한 하나님의 위대함에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이 아니고 그 인물, 그 사건을 주도하신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야 한다. 그랬을때 우리는 자책보다는 감사, 자기 비하보다는 자기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풍성하심을 간증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전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은 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비벨론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기막히신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왕하 19:31).

사람의 위대성은 마치 도토리 키재기에도 같을 뿐이다.

정점다비

가슴에 새겨진 아이들

정 광 옥(목사, 제13교구, 중동3부지도)



고등부로 올라간 아이들이 얼마전 다시 5층으로 올라왔다. 여느때처럼 아이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약속하고 그동안 잘 지내는지 지상과업인 공부 상태는 어떤지 물었다. 중3부때 초롱이던 눈망울을 그대로 다시 기억하며 그 아이들이 중동3부인지 고등부인지 차이가 없었다. 쭉 돌아가며 인사를 하며 지나는데 작년 천양대에서 봉사하던 아이들 몇명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잠시지만 머리를 짜내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미안한 마음으로 "애들아 미안하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구나. 내 머리는 너희들과 달라서 아직도 286급인가보다 새로운 아이들 이름 400개를 기억하다 보니 내 메모리에서 너희들이 이름이 다른 애들의 이름으로 덧씌우게 됐나보다" 했더니 그 아이들이 "목사님 편찮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이름들을 다 기억하겠어요"라고 오히려 미안해 하는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데 조금전에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했던 여학생이 항의하듯 말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직까지 목사님 머리에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난 우리가 목사님 가슴에 있는줄 알았어요!"

됐다! 애들이 머리는 내 머리에 있을 아이들이 아니구나. 너희는 머리로 기억하고 머리로 가르칠 사람들이 아니지. 가슴에 묻고 뜨거운 가슴으로 가르치며, 가슴으로 기도하며 함께 일해나갈 귀한 일꾼들에게. 내 사랑하는 민족의 꿈들아, 절대로 너희를 머리로 대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이야기로 가르치마. 내 사랑하는 민족의 꿈들아!

6.25 맞아 활발한 군전도회 활동

군전도회는 625가 있는 6월을 맞으며 군전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지난 6월 2일에는 제3공수여단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이저프린터 1대를 선물로 기증하고, 장병들 개인에게 기념 볼펜을 주었다. 위문대는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식사를 하고 낙하훈련장비를 견학하기도 했다.

또 6월 16일에는 수도 통합병원 병실 찬양대회를 후원하며 입원중인 장병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다. 마리아 7 여전도회가 참여하여 특순과 상품들을 전달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이날 에스더 루디아 13지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동해교회와 OO합대를 방

문, 위문하기도 했다. 성경·찬송 158권과 충현지, 충현의 만나 등 서적을 선물로 전달하며 장병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6월 15~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해병 제6여단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군전도회 회장 김재명 장로를 비롯해 89명이 참석했다.(사진은 OO합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에스더·루디아 3지회 회원들)



할 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올립니다.

하나님 명령따라 시대적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시느라 애쓰시며 밤낮 염려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또한 함께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영혼구원의 지상명령을 수행키 위해 세계를 교구로 삼고 쉬임없는 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계속 후원해주시는 충현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충현의 교우님들이 염려하시며 기도해주셔서 순조롭게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다행히 학업과 생활에 잘 적응케 되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부터 예배 드린 교회까지 비록 작게 시작된 교회였을지라도 인연하여 섬기게 됨이 교회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이려니 하고 출발한 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깨달아져서 미약하지만 힘껏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저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깊은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 차차 교회의 모습이 갖추어 갔습니다.

피차 돕는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선 때 맞춰 협력할 일꾼들을 보내 주셔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을 마련해가며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생활, 항상 기도하는 생활, 사랑을 힘써 실천하는 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실천하며 주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도록 목표하고 몇 가지 작은 사업계획과 더불어 분기마다 성례와 성찬식도 행하며 금년을 출발했습니다.

가정을 떠나봐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듯이 고국을 떠난 저희들은 본 교회와 나라의 귀중함을 깨닫고 지난 3월 1일을 맞아 어린이로부터 전 교인이 지난날들에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것을 온전히 행치 못한 것들을 온종일 통회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를 계기로 하루 3번 이상 기도하는 신자가 되기로 굳게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만역사로써 문화적 차이와 짧은 영어실력이나 인식부족, 오해와 마찰 등으로 일어나는 충돌을 많은 안내심을 갖고 참아내기란 험기왕성한 학생들에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소한 일로 일어

난 학생들의 패싸움으로 한국 학생 1명이 퇴교되고 7명이 정학되고 NZ 해럴드에 토핑으로 게재되고 방송되는 등 후유증이 여러 학교에서 한국학



◆ 뉴질랜드 / 김형선·한영자 평신도선교사 ◆

유학생들을 위한 '예수사랑 큰잔치' 성공리에 마쳐

생입학 거부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부 유학생의 탈선으로 인한 한국인 이미지 손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녀 예절교육이다, 청소년 선

도다. 한국인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치 모색 등 원활한 교민사회건설을 위한 길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고 있는 때에 타교회와의 문제를 고려하여 교회 차원을 넘어 저희 가정들 중심으로 기도으로 준비하던 중 유학생들을 위한 '예수사랑 큰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보내주신 성탄헌금을 요건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이곳을 잠시 방문하셨던 중등부에서 수고하시는 아영환 집사 내외와 당산구역의 한민수 집사 내외의 특별헌금에 힘입어 예수사랑 큰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무사히 치루게 되었음을 교회와 온 충현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김형선·한영자 집사의 가족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승리자의 자유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성공자의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준비를 잘하고 실력을 키울 것과 훈련을 잘 받아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선택한 방법으로 많은 일에 충성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위의 물질 부귀의 복을 아울러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인격으로 자라기를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지혜있는 사람으로, '나는 부족하구나'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남은 때는 올바르게 살아보기로 결심하면서

다. 이날은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창세기 50:15-26(참고 39:1-23)

◆ 뉴질랜드 / 김형선·한영자 평신도선교사 ◆

유학생들을 위한 '예수사랑 큰잔치' 성공리에 마쳐

생입학 거부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일부 유학생의 탈선으로 인한 한국인 이미지 손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자녀 예절교육이다, 청소년 선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는 승리자의 자유와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성공자의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준비를 잘하고 실력을 키울 것과 훈련을 잘 받아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선택한 방법으로 많은 일에 충성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위의 물질 부귀의 복을 아울러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인격으로 자라기를 격려했습니다.

민음으로 담대히 전전하길 다짐하였습시다. 먼저 예배드리고 상호토론도 하고 친교도 나누며 한식으로 저녁식사까지 나누는 든든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자신들의 행동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작은 선교사로, 대사로써 각 학교에 파견되었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끔 이르렀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때 보다 성숙하고 강인해짐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큰 꿈과 소망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2차 범위를 넓힐 계획도 해봅니다.

또 NZ에 있는 한인들에게 문서를 통해 복음을 들려 주어 그들이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며 그리스도를 멀리 했던 한인 그리스도인이 읽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깨달아 그의 나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올바르게 충성스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돕고자 교회차원에서 매월 40페이지 정도로 성경, 선교, 청소년, 성경정독과 생활 기타 교계 소식 등으로 구성되어 대달부터 월간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무조록 선교지가 복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흥미를 가지고 읽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온 교회가 기도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뉴스를 들은 이웃에 아는 현자인들 중에 심히 안타깝게 걱정하며 위로하는가 하면 한국을 잘 아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의 놀라운 교회 부흥을 주시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기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 위로합니다. 이에 세계복음화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밤낮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는 1,200만 성도들이 더욱 연단되어 더 잘 감당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곳 NZ는 겨울 우기인데 오를랜드 시가 이례적으로 10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맞아 심각한 물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음으로 슬중하며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부흥 발전하는 충현교회와 형제 자매의 가정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NZ에서 김형선 한영자 집사 올림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3일(주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임직식 설교
4일(월)~6일(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부흥회 설교
· 신성종 목사 :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사 듣는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송하여 열매맺게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3.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 민족의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정상회담에 임하는 김영삼 장로님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사 기도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서 민족사에 큰 공헌을 남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북한의 김일성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형식적인 회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4. 교회학교와 교구가 말씀의 터전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사 생활을 통해 본을 보여주며 가는 곳마다 죄악을 몰아내며 부정과 불의를 몰아내게 하옵소서.
5.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유대인 선교와 이스라엘 방문객 선교프로그램과 성지연구소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